

Dow, 전자재료 어워드 개최

Dow Chemical Korea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자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지식경제부가 후원한 <Dow 전자재료 어워드>에서 전순옥 단국대 고분자공학과 박사(현재 워싱턴대 화학공학과 박사 후 과정)가 최우수 논문상(1등)의 영예를 안았다.



또 강일(경상대 고분자공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 박운익(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박사과정), 위경량(고려대 소재화학학과 박사과정) 씨가 2등을 수상했다.

3개 주관기관은 2월20일 서울 Dow Chemical Korea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다우 전자재료 어워드>는 국내 전자소재 산업 발전과 이공계 인재 발굴을 위해 마련한 행사이며, 2012년 10월부터 11월25일까지 국내 대학 석·박사를 대상으로 국내외 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접수했다.

전자재료 분야 전문가인 Dow Chemical 관계자, 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1개월여 동안 심사를 진행해 1등 1명과 2등 3명을 선정해 1등에게 1000만원, 2등 3명에게는 각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양창원 다우케미칼 전자재료그룹 총괄사장 겸 Dow Chemical Korea 대표는 “전자재료산업에 종사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3/02/21>